

退溪의 勸義指路辭 研究

徐 元 燮

目 次	
I 序 言	III 作 品 攷
II 作 者 攷	1 <勸義指路辭> 全文
1 健 康	2 內 容
2 學 問	3 形 式
3 著 述	IV 結 語

1. 序 言

儒敎國家인 朝鮮朝 五百年에 있어 수많은 儒學者가 輩出되었으나 그 中 가장 偉大한 道學者는 退溪이다.

그는 朝鮮朝 性理學에서만 偉大한 哲人이 아니라 國文學에서도 높이 評價될 作家이다. 性理學에서는 그를 「哲學者型의 道學者」로 規定하겠지만 國文學에서는 「詩人·文學者型의 道學者」로 보아야 할 것이다. 當時의 儒學者들이 우리글을 賤視하여 外面 唾棄한데 比해서 그는 連時調인 「陶山十二曲」과 「琴譜歌」「勸義指路辭」를 비롯한 數篇의 歌辭를 創作했을 뿐 아니라 陶山十二曲 跋에서 唱과 作品은 우리 文字로 創作할 必要性을 強調하기도 하였다. 그의 見解를 보면 「이제의 詩는 옛詩와는 달라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하지는 못한다. 꼭 歌唱코자 하면 俚俗의 말로써 寫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나라 風俗과 音節이 그렇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는 實로 우리 文字로 詩歌를 짓는 것을 깊이 理解하고 또 實踐한 道學者이다.

筆者는 그의 「陶山十二曲」과 「琴譜歌」를 研究 發表한데 이어 이제 「勸義指路辭」에 對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II. 作 者 攷¹⁾

1. 健 康

退溪文集의 到處에 疾病에 對한 記錄이 있고, 또 그 自身도 自銘에서 「生而大痴 壯而多

1) 作者攷는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에서 作家論의 一環으로 1) 家系 2) 生涯 3) 爲人에 이어 誌圖되고 있다.

疾』이라고 하였는데, 그의 健康이 어느 程度였는가를 剴明해 보는 것도 興味있는 일이라 하겠다.

먼저 그의 病歷을 年譜와 「病詩」를 가지고 作成해 보기로 한다.

- 20歲 庚辰 識周易 講究其義 殆忘寢食 自是 常有羸瘵之疾
- 37歲 丁酉 10月 母夫人朴氏憂 至是自京奔喪 服中柴毀成疾 幾至不救
- 41歲 辛丑 12月 以病辭
「偶吟」「病中贈別洪同知太虛謝恩赴京」「季夏林士遂見訪」
- 42歲 壬寅 「玉堂春雪用歐公韻」
- 43歲 癸卯 2月 病辭
8月 授朝散大夫 陞司諫院司諫 病未拜
「次韻謝南景霖送竹栽二本」「三月病中言志」
- 44歲 甲辰 4月 除世子侍講院左弼善 以病不拜
6月 病辭 移拜成均館直講 又拜弘文館校理 病遞 除宗親府典籤
「病中李子發求藥」「月下散步北園花樹下用肥仙韻寄南景霖病中聊以遣懷」
- 45歲 乙巳 正月 差遠接使 從事官 病不行
3月 病免
8月 授中直大夫 病辭館職
- 46歲 丙午 5月 病未還朝解職
「寓月瀾僧舍書懷二首」「以事當還都至榮川病發驛行留草谷田舍」「東岩言志」
- 47歲 丁未 8月 被召還朝 有古意 雪竹歌 病中讀史有感 等詩
「又賦寄黃仲舉李大用是日兩君陪來」「古意」「次韻景說景霖二首」「雪竹歌」「病中讀史有感三首」
12月 病辭
- 48歲 戊申 「秋日書懷」「洛生驛樓次金應霖贈別韻二首」
- 49歲 己酉 9月 以病 呈辭狀于監司
12月 以病 三辭于監司 請解官 不待報而歸
「答周景遊見寄二首」「八月十五日夜吟」
- 50歲 庚戌 「拜龔先生令侍兒歌東坡月夜飲杏花下詩次其韻示之澁亦奉和呈上」
「和陶集移居韻二首」
- 51歲 辛亥 「清明溪上書堂二首」
- 52歲 壬子 6月 與同僚上笏論事 以病辭 拜弘文館副應教
11月 病辭 拜上護軍
「李大成來訪溪堂」「答黃仲舉」
- 53歲 癸丑 7月 以病辭 拜副護軍
- 54歲 甲寅 「紅桃花下寄金季珍二首」
「病中有客談關東山水慨然遠想復和前韻」
- 55歲 乙卯 2月 以病三辭解職 下召旨令就醫京師 先生上箋謝恩 辭召命 不允
「病牖」「次韻黃新寧仲舉」
- 56歲 丙辰 6月 除僉知中樞府事 有旨情意激切 故勉從可 安心調病
「立秋日溪堂書事三首」

- 58歲 戊午 11月 病辭 拜上護軍
 12月 御筆特陞嘉善大夫工曹參判 以病辭 不允 再辭 三辭 不允
- 59歲 己未 2月 乞暇歸鄉焚黃 病未還朝 上狀附職 不允
 「東齋感事十絕」
- 60歲 庚申 「和子中間居二十詠」(養靜·服藥)
- 61歲 辛酉 正月 將赴召 適寒馬 以病辭
- 66歲 丙寅 正月 召命至西行 至榮川以病辭
 7月 命待病差上來
 「正月將赴召病留龜城上狀乞辭待命書懷東軒韻」「病中得金季隱書二絕」「二月初九日用東軒韻二首」「十三抵醴泉再辭待命呻吟之餘見軒有己酉經行拙句有感二絕」「十六日病吟二首」「二十一日偶題」「訪大成公幹於汾川金舜舉適至」「至月初八日夜記夢二絕」「丙寅正月二十六日力疾赴召出宿聖泉寺次二友韻」「榮川公館病留答李宏仲」「山居偶書病懷寄士敬聞遠」
- 67歲 丁卯 6月 赴召入都 明宗昇遐 先生入城三日 以病未及肅拜
 8月 以病免 卽東歸
 10月 許曄啓曰 … 李滉有病而歸
- 68歲 戊辰 8月 以病在告 辭本職及兼帶大提學…… 遣醫問疾
 11月 庚申病告辭職 命給假遣醫問疾 賜食物 己巳又遣內醫問疾
 「病中偶記前日無字韻和句錄呈存齋」
- 69歲 己巳 正月 庚戌除吏曹判書 不拜 以病三辭
- 70歲 庚午 11月 以病倦謝遣諸生
 12月 辛丑 酉時 終于寢

위의 病歷을 통해서 몇 가지 事實을 알 수 있다.

첫째, 退溪의 發病動機는 寢食을 잊고 學問 講究에 沒頭한 때문이었고, 둘째로 이렇게 學問研鑽으로 얻은 病이 骨髓에 맺혀 痼疾病이 된 것은 母夫人 朴氏의 服中의 哀痛때문이었다. 以後 그는 一生 동안 健康이 좋지 못하여 調病에 힘썼는데 그의 生涯中 特히 健康狀態가 좋지 못한 時期는 「自43歲 至46歲」「自66歲 至68歲」라고 볼 수 있다

그도 少年期에는 여느 少年들과 같이 健康한 少年이었는데 그의 15歲 때 作인 「石蟹」라던가, 18歲 때 作인 「遊春詠野塘一絕」이라던가, 19歲 때 作인 「詠懷詩」를 보면 病弱한 少年에게서는 결코 찾아 볼 수 없는 天真爛漫한 童心의 世界와 自然을 觀察하고 思索하는 冷徹性이 엿보이고, 또 10餘年 間 萬卷書를 耽讀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健康體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렇듯한 그도 20歲 때 스승의 올바른 指導없이 獨力으로 周易을 읽고 그 뜻을 講究하기 爲하여 寢食마저 잊었기 때문에 結局 健康을 害치고 말았던 것이니 以後 그는 平生을 多疾한 몸이 되었다

僕早年妄嘗有意 而昧其方 徒以刻苦過甚 得羸瘵之疾²⁾

2) 退溪先生文集 卷之二十三 答趙士敬 一張 (增補退溪全書 一 p 548)

이는 退溪 自身이 50歲(庚戌) 때 弟子 趙士敬에게 보낸 答書에서 言及한 바이고, 또 言行錄에서도 李德弘 金誠一이 記錄하고 있다.

先生嘗言 吾少時發憤爲學 終日不綴 終夜不寐 遂得痼疾 迄未免廢之人(李得弘)³⁾

嘗曰 余自少雖志於學 而無師友啓發之人 俛偃數十年 未知入頭下功處 枉費心思 探索不置 或終夜靜坐 未嘗就枕 仍得心志 廢學者累年 若果得師友 指示迷途 則「至任用心力 老而無得乎(金誠一)」⁴⁾

그는 得病한 翌年인 21歲와 30歲 때 2회나 結婚을 하였고, 太學(成均館)에 2회의 遊學과 進士試 生員試 進士會試 文科別舉初試 鄉試 等に 合格, 이어 34歲 때 文科에 及第한 後 副正字로 出仕하여 35歲 때인 6月에는 護送官으로 倭奴를 東萊까지 護送하는 等 37歲 되는 9月까지는 健康한 사람과 다름없는 生活을 하였다. 이와같이 健康人과 같은 生活을 했다고 해서 20歲 때에 얻은 病이 完快한 것은 아니어서 그는 如前히 病魔에 시달리는 몸이었다 이를 證明해 주는 記錄이 言行通錄 卷之四「出處」에 있으니, 보면「 젊어서부터 疾病이 많아 司馬試에 合格한 後로는 仕宦할 뜻이 없고 오직 奉親과 養病할 뜻 뿐이었으나 仲兄의 懇切한 勸告로 半宮에 遊學하여 數個月間 科業에 힘썼더니 精神이 어지럽고 휘둘리어 밤중에 생각해보면 견디기 어려울 地境이었다. 病으로 極도로 衰弱한 몸인데도 科擧에 及第한 때문에 仕宦하게 되었다」고 하는 條項이다.

嘗曰 少多疾病 自中司馬之後 殊無進取之意 惟以奉親養病爲心 爲仲兄敦勸 更作遊泮應舉之計 阻勉數月 事多肘掣 久居喧囂 精神眩怳 中夜思之 轉覺不堪 適未幾中第 故以至於今日 不然則再入國庠 以圖決科 決知其不可爲矣⁵⁾

이와같이 病弱한 그가 骨髓에 맺힌 痼疾病을 얻은 것은 母夫人의 喪을 當한 때문이었다.

年譜에 依하면 「37歲 되는 10月에 母夫人 朴氏의 喪을 當하자 너무나도 哀痛한 나머지 쓰러가지같이 몸이 말라 病을 앓아 거의 恢復할 수 없는 地境이 되었다」

十月丁母夫人朴氏憂 至是自京奔喪 服中柴毀成疾 幾至不救⁶⁾

고 하는 記錄이 보이고, 또 戊午辭職疏에서도 어려서 得病하여 氣血이 凋虛하던 것이 難治病이 되었는데 中間에 母親喪을 當하여 心疾이 더해져 여러번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다고 한 記錄이 보인다.

臣稟性凡劣 懵不曉事 夙嬰疾病 氣血凋虛 遂至於沈痼難治 因此失學 年過三十 倥傯科第 中遭喪

3)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3)

4)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3)

5)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四 出處 一張 (增補退溪全書 四 p. 61)

6)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116)

棘 加以心疾 屢瀕死地 僅而得甦之後 具患往復 一有勞煩 輒復發動 力寸不安 其職將何以効 匪躬而應世務乎⁷⁾

退溪의 母夫人에 對한 孝誠은 참으로 至極한 것이었다 그는 2歲 때 父親을 여의고 母夫人에 依해서 養育되었는데 이때 8男妹 中 長男 潛단이 結婚하였을 뿐 나머지는 幼冲해서 7男妹를 成婚시킬 때까지의 母夫人의 辛苦는 말할 수 없었고, 子息들에게도 恒常 持身과 行動을 삼가 할 것을 訓戒하며 子女들의 教育에 온 精誠을 기울였기에 이러한 精誠은 諸子 中 特히 막내아들인 退溪에게 많은 感化와 影響을 주었다. 하기에 母夫人에 對한 그의 孝誠과 精誠은 남 나른 바가 있었으니, 그가 쓴 「先妣贈貞夫人朴氏墓碣識」에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나 있고, 또 36歲 때인 丙申年末에 지은 「歲季得鄉書書懷」에는 懷母의 情이 잘 나타나 있다 母夫人에 對한 孝誠이 至極한 그이기에 六品 職에 昇進되면서 부터 母夫人을 奉養키 위해서 外職에 나가기를 빌었으나 그때마다 當路의 沮止로 이루지 못하던 次에 母夫人의 訃音을 듣고 臨終도 못한 悔恨으로 痼疾病을 얻어 결코 恢復할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40歲인 正月에 司諫院 正言에 除授되자 還朝하여 42歲 때인 12월까지 職務遂行을 圓滿히 하였을 뿐 아니라 그間 咨文點馬官으로 義州에 다녀 오고 忠淸道 御史로 1個月 間 道內 郡邑에서의 凶年 救濟狀況을 調査하고 또 江原道 御史로 그곳 災害를 살피는 等 東奔西走한 것으로 보아 母夫人의 喪을 當하여 「服中柴毀成疾 幾至不救」라고 한 것을 믿을 수 없을 程度의 健康體다. 그러나 위의 記錄이 事實일진데 恢復할 수 없는 病이 들었으면서도 激務를 遂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三年喪 동안 養生과 調病에 힘쓴 結果 어느 程度 健康을 恢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完全한 健康을 회복하지 못한듯이 여겨지는 것은 再出仕 翌年 5월에 咨文點馬官으로 義州에 갔다온 後 그해 12월에 病辭한 것으로 알 수 있고, 또 42歲 때인 3月과 8月에는 忠淸道와 江原道 御史로 다녀 오는 等 激務로 恢復된 健康이 다시 惡化한 듯하다.

그 翌年인 43歲 때의 2월에 病으로 辭職하여 8월에 司諫院 司諫에 陞進되었으나 病이 快愈치 않아 就任하지 않았고 또 比較的 閑職에만 있던 것이 그의 健康이 좋지 못한 狀態임을 말해 주고 있다. 健康이 漸漸 惡化되어 가니 이때 부터 致仕歸田하여 自然을 벗하며 調病 養生코자 하는 생각을 먹게 되어 名利를 貪하기를 싫어했다. 그의 53歲 때인 癸丑年에 曹植에게 보낸 편지에 病으로 43歲인 癸卯년부터 물러갈 생각이었다고 했고, 또 鄭惟一이 撰한 言行錄에도 當時의 事情이 어려웠으므로 癸卯년부터 물러나 싶듯이 있다고 하였다.

聖恩舍垢 虛名迫人 自癸卯至壬子 凡三退歸 而三召還 以老病之精力 加不專之工程 如是 而欲望其

7) 退溪先生文集 卷之六 戊午辭職疏 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71)

有成 不亦難乎⁸⁾

先生本少宦情 又見時事有大機關 自癸卯始決退休之志 是時先生年蓋四十三矣⁹⁾

44歲 때는 前年보다 더 健康이 좋지 못한 듯하니 4월에 世子侍講院 左弼善에 除授되었으나 「以病不拜」하였고, 6월에는 두번이나 「病辭」하였고, 45歲 正月에는 遠接使 從事官이 되었으나 「病不行」하였고, 3월에도 「病免」하였고, 8월에도 「病辭(弘文)館職」하였다. 그 翌年인 46歲 때 2월에 丈人의 訃告로 故鄉에 갔다가 5월에는 病으로 「病未還朝」할 程度로 病이 甚했다.

또 그의 詩 「三月病中言志」¹⁰⁾ 「病中李子發求藥」¹¹⁾ 「月下散步北園花樹下用肥仙韻寄南景霖病中聊以遣懷」¹²⁾를 보아도 43·4·5歲 때 그의 健康은 纔 좋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면 43歲 때부터 46歲까지의 退溪의 健康은 甚히 惡化한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44歲 11월에 中宗이 昇遐하고 그 翌年 7월에는 또 仁宗이 昇遐하여 잇따른 두 王의 昇遐로 너무나 哀痛하고 奔走하던 나머지 病이 더해 벼슬하기가 어려웠고, 또 10월에는 李芑의 啓請으로 削職의 變을 當하고 거기다가 2월에는 丈人, 7월에는 再娶夫人 權氏의 喪을 當하자 肉體的으로나 精神的으로나 甚한 衝擊을 받았을 뿐 아니라 職務遂行으로 養生 調病할 餘暇가 없어 病이 惡化되었다. 43歲인 癸卯로 부터 46歲 때인 丙午 2월에 그의 丈人의 喪을 當하여 歸鄉하기까지 病勢는 日深하여 能히 職務를 다할 수 없을 程度로 健康이 惡化되었다고 하는 記錄이 戊午辭職疏와 甲辰乞勿絕倭使疏에 各各 보인다.

中廟之末 大馬之齒 四十有三 而病勢日深 身爲司成 不能供職 因受由而退歸 明年甲辰 以校理召還已 而二聖昇遐 主上嗣服 哀隕空惚之餘 增病難仕 丙午之春 又以司僕正 受由而歸¹³⁾

臣素有虛羸 沈痼之疾 此來尤劇 氣息線延 與死爲隣¹⁴⁾

그는 그해(46歲) 11월에 閒寂한 退溪의 東巖에 養眞庵을 짓고 學問研鑽과 養生 調病에 힘쓴 結果 그 翌年 8월에 弘文館 歷敎로 被召還朝하여 12월에 한 차례 病辭한 적은 있으나 그 翌年에 丹陽과 豊基郡守를 지낸 바 있고, 그 翌年 4월에는 險峻한 小白山을 登山 遊覽할 程度로 健康이 恢復되었다. 50歲 되던 2월에 退溪의 西쪽 溪上에 寒樓庵을 構築하고 堂名을 「靜習」이라고 하고 그 속에 淸靜히 養生과 讀書와 後進敎誨에 힘

8) 退溪先生文集 卷之十 與曹鍵仲 三張 (增補退溪全書 一 p 283)

9)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一 言行通述 二十張 (增補退溪全書 四 p. 18)

10)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三 p 22)

11)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二十二張 (增補退溪全書 三 p 25)

12) 退溪先生續集 卷之一 二十五張 (增補退溪全書 三 p. 27)

13) 退溪先生文集 卷之六 戊午辭職疏 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71)

14) 退溪先生文集 卷之六 甲辰乞勿絕倭使疏 十二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69)

셨다.

이 때의 退溪의 心境을 읊은 詩가 있다.

茅茨移構澗巖中 正值巖花發亂紅
古往今來時已晚 朝耕夜讀樂無窮¹⁵⁾

身退安愚分 學退憂暮境
溪上始定居 臨流日有省¹⁶⁾

以後 몇 차례의 病辭가 있었다고는 하나 大體로 平穩한 나날을 보낼 수 있어 58歲 때까지는 刑曹·兵曹參議와 僉知中樞府事 大司成 等職도 遂行할 수 있었다. 그 間 55歲 2月에 「以病三辭解職」하여 歸鄉하자 「京師에 와서 醫員에게 진료하라」

以病三辭解職 卽出城買舟東歸 賜食物 下召旨令就醫京師 先生上箋謝恩 辭召命 不允¹⁷⁾

는 것과 56歲 때인 丙辰 6月에 「安心하고 調病하라」(有旨情意激切 故勉從可 安心調病)는 王命으로 그의 健康狀態가 一時 惡化되기도 한 모양이나 調病 結果 良好해진 듯하다.

55歲 11月에 淸涼山에 가서 月餘나 登山과 遊覽을 한 일이라던가, 56歲 때 9月 9日에 溫溪里의 諸親族과 落帽峯에 오른 일이라던가, 57歲 4月에 大紫山에 간 일 등을 본다면 調病으로 大體로 健康體를 維持한 듯하다 58歲 되던 閏7月에 赴召入都하여 10月에 成均館 大司成 等職에 있었으나 病弱한 몸으로 職責을 담당하기가 어렵고 또 名利에 뜻이 없어 몇 차례 病辭를 하였으나 允許를 얻지 못하다가 그 翌年(59歲) 2月에 焚黃을 爲해 乞假歸鄉하였다가 病이 惡化하여 還朝하지 못하고 同知中樞府事로 遞任되어 67歲 때인 丁卯 2月 赴召入都할 때까지 故鄉에서 養生調病과 學問研鑽, 後進教誨에 專念하는 生活을 하였다 「自59歲 至65歲」의 期間은 그의 生涯中 講學期(自50歲至70歲)로 學問研鑽과 後進教誨에 있어 黃金期라고 할 수 있으니, 곧 그의 60歲 때 5年 間에 걸친 陶山書堂을 完成하여 많은 學徒의 講學에 힘쓰는 한편 學問研鑽에도 專念하여 이 期間에 많은 著述을 지었고, 특히 高峯 奇大升과 四端七情辨을 始作한 것도 이 期間이었다. 그리고 養生 調病에 힘썼다고 한 것은 이 期間 그의 病勢가 完快한 것은 아니었으니 59歲 때인 己未에 高峯과 주고 받은 「與奇明彥」과 「答奇明彥」에서 「病이 더욱 깊어 痼疾이 되어가고」, 「나 亦是 木은 病에 지쳐 人事 닮을 겨를도 없다 身病은 벌써 깊었다. 나의 身病이 甚한 것을 모든 國人들이 다같이 보아서 알고 또 天地鬼神도 다 같이 알 것이므로 오직 疇계만이 아니다」

15)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移草屨於溪西名曰寒棲庵 四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一 p 69)

1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退溪 四十七張 (增補退溪全書 一 p 70)

17)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中 四張 (增補退溪全書 四 p 124)

况一味所向觸事成誤 病轉深痼 而恩愈荐加 懼懇乞免 率歸於虛空無益 工曹雖號無事 豈吾養病坊耶¹⁸⁾

况亦自困於積病 無暇修人事 · 况少嘗有志於學 而無師友之導 未少有得 而身病已深矣 … 身病如許 國人所共見 天地鬼神所共鑑 非有託也 雖欲如內臣之屢乞辭退 不亦難乎 人之歸責無亦有甚於病患者乎 此况所以爲公憂且懼也¹⁹⁾

等の 內容으로 보아 病으로 苦生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養生 調病하는 方法으로 呼吸調節法의 使用과 가벼운 散步를 하였다 特히 손수 藥草를 심어 健康恢復과 維持에 細心한 注意를 기울여 養生 調病 했음을 陶山雜詠并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余恒苦積病 纏綿雖山居 不能極意讀書 幽憂調息之餘 有時身體輕安 心神灑醒 伛仰宇宙 感慨係之 則撥書攜筇 而出臨軒翫塘 陟壇詩社 巡圃蒔藥 搜林搢笏 或坐石弄泉 登臺望雲 或磯上觀魚 舟中狎鷗 隨意所適 逍遙徜徉 觸目發興 遇景成趣 至興極而返 則一室岑寂 圖書滿壁²⁰⁾

이와같이 養生 調病을 하나 完快한 것은 아닌 듯하니 66歲되던 正月에 召命에 應하여 上京다가 榮川에서 病이 惡化해서 辭職疏를 올리고 豊基에서 待命했으나 잘 調理하여 上京하라는 命과 內醫員을 보내어 施藥과 問病한 일과 7月에 資憲加資 및 知中樞府事의 辭免疏를 올렸으나 安心하고 調理해서 病差를 기다려서 올라오라는 記錄(安心調理待病差上來)과 이 해 病에 對해서 읊은 詩인 「正月將赴召病留龜城上狀乞辭待命書懷東軒韻」²¹⁾ 「病中得金季應書二絕」²²⁾ 「二月初九日用東軒韻二首」²³⁾ 「同前韻」²⁴⁾ 「豊基道中」²⁵⁾ 「十三抵醴泉再辭待命呻吟之餘見軒有己酉經行拙句有感二絕」²⁶⁾ 「十六日病吟二首」²⁷⁾ 「十八日風雨感懷」²⁸⁾ 「二十一日偶題」²⁹⁾ 「偶吟」³⁰⁾ 「是日復用晨起對雨韻二首」³¹⁾ 「夜雨」³²⁾ 「丙寅正月二十六日力疾起召出宿聖泉寺次二友韻」³³⁾ 「榮川公館病留答李宏仲」³⁴⁾ 「山居偶書病懷寄士敬聞遠」³⁵⁾ 「寄謝尹安東」³⁶⁾ 等으로 보아 그의 病은 極度로 惡化한 듯하다.

18) 退溪先生文集 卷之十六 與奇明彥 一張 (增補退溪全書 一 p. 402)

19) 退溪先生文集 卷之十六 答奇明彥 二~三張 (增補退溪全書 一 p. 402)

20)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陶山雜詠并記 八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01)

2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九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1)

2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1)

23)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1)

24)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一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2)

2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一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2)

26)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一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2)

27)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二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2)

28)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二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2)

29)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三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3)

30)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四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3)

31)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五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4)

3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 十七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35)

33) 退溪先生續集 卷之二 三十張 (增補退溪全書 三 p. 47)

34) 退溪先生續集 卷之二 三十張 (增補退溪全書 三 p. 47)

35) 退溪先生續集 卷之二 三十一張 (增補退溪全書 三 p. 48)

36) 退溪先生續集 卷之二 三十二張 (增補退溪全書 三 p. 48)

그는 病에 對해서 읊은 詩가 그리 많지 않은 中 66歲 때만은 病에 대해서 노래한 詩가 위에서 列擧한 바와 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連이은 召命에도 나아가지 않았으나 그 翌年(67歲) 2월에 明의 世宗이 崩하고 穆宗이 卽位하여 將次 온 詔使의 酬應에 對備코자 召命하네 病軀를 이끌고 6월에 赴召入都하였으나 入城 三日이 되도록 病으로서 肅拜도 드리지 못하던 次에 明宗이 昇遐하였다. 하기에 그는 身病을 調理할 사이도 없이 大行王行狀修撰廳 堂上이 되어 行狀을 撰進하고는 國喪을 當하여 너무 哀哭한 나머지 身病이 惡化해서 職務를 擔當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러해 病으로 鄉里에 있다가 겨우 還朝해서는 病的 惡化로 職務를 堪當할 수 없어 臣下의 道理를 다할 수 없다고 해서 여러 번 病辭 끝에 病免되어 歸田하였다.

況臣去年入都 遭變罔極 攀號累朔之餘 賤疾遽劇 勢將難救 禮判除受 不能供職 實於辭免之日 乞致仕歸田 而未蒙允 可臣之意 以謂長年病退 纔入而又病 不職無狀如此 是其於匪躬之地義 既不展則獨有退身一義灼然明甚是 以山陵在前 不能留待 乘遞職無官之際 而率爾徑歸³⁷⁾

그 翌年 68歲 때에도 健康이 恢復되지 않아 崇政大夫 議政府 右贊成·判中樞府事 等職에 除授 召命되자 屢次 病辭를 하였으나 允許가 없자 6월에 故鄉을 떠나 7월에 入都하여 獻官으로 康陵(明宗)에 祭祠지내고 經筵에 入侍하여 進講하는 等 別로 激務가 아니라 하더라도 身病으로 견디지 못해서 入侍조차 자주 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11월에 辭職코자 하니 召命으로 給假하고 內醫를 보내어 問病하였다. 68歲 때도 官職에 있었다고 하나 病은 깊어 能히 職務를 堪當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戊辰辭職疏(一)와 年譜의 戊辰條 및 進聖學十圖筭并圖를 보면 알 수 있다.

而加之 以病入百育 積成死福 強壯之年 尙不能從仕 今則大馬之齒 六十一有八 元稹殘疾 昏眩茫昧 更甚於八九十歲人 今不記昨夕 已忘朝 一言未終 頓失首尾 一事當前 暈迷前後³⁸⁾

戊辰(68歲)六月 上狀力辭 上皆不許 以狀中有在途病發之語 命遣內醫馳視
八月 以病在告 辭本職及兼帶大提學 仍乞宗政加 依願改正 不允 遣醫問疾 連辭不許
十一月 庚申病告辭職 命給假遣醫問疾 賜食物 己巳又遣內醫問疾³⁹⁾

願臣學術荒疎 辭辯拙陋 加以賤疾連仍 入侍稀罕 冬寒以來 乃至全廢 臣罪當萬死 憂慄罔措 第緣臣抱寒穢疾之中 自力爲此 眼昏手顫 書末端楷 排行均字 並無准式⁴⁰⁾

이와같이 退溪는 20歲 때 寢食을 잊고 周易을 읽으며 그 뜻을 講究하기에 沒頭한 나머지 病을 얻어 健康을 해치는데도 不拘하고 繼續된 學問研鑽과 出仕 後 職務遂行으로 지친 狀態에 있다가 37歲 때 母夫人의 喪을 當하여 너무나도 哀哭한지라 病이 骨髓에 맺히 癩疾病이 되었다. 以後 그는 平生을 通하여 病魔에 시달리는 몸이 되었고 養生 調病

37) 退溪先生文集 卷之六 戊辰辭職疏(一) 二十三~四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75)

38) 退溪先生文集 卷之六 戊辰辭職疏(一) 二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76)

39)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七 年譜下 四十三張 (增補退溪全書 四 p 137~144)

40)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進聖學十圖筭并圖 六~七張 (增補退溪全書 一 p 196~7)

의 生活이 繼續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退溪는 결코 健康體가 못되었고 病弱한 몸이 었기 때문에 그는 名利에 뜻이 없고 官界에 나가서도 항상 致仕歸田의 뜻을 품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2. 學 問

朝鮮朝 性理學의 第一人者로 追尊되는 退溪가 처음으로 讀書를 始作한 것은 6歲 때였다. 이웃 老人에게 千字文을 배웠는데 아침에는 반드시 洗櫛하고 그집 울타리 밖에서 前日 배운 것을 여러번 默誦한 後 들어가 俯伏하여 듣고 배우기를 마치 嚴師를 대하듯 했다고 하니 이에서 우리는 後日 學問研鑽에 專念하여 朱子學을 集大成한 退溪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本格的인 工夫는 12歲 때 叔父인 松齋公 堧에게 論語를 배우면서였다. 松齋公은 子弟의 教育에 極히 嚴하여 論語의 集註를 첫 字에서 끝 字까지 한 字 틀리지 않게 暗誦해도 稱讚하거나 기뻐하는 顏色을 하지 않았고, 또 한 卷을 완전히 마쳐야 다음 卷을 읽게 하는 教授法을 하였기 때문에 後에 退溪가 學問에 게으르지 않고 研鑽에 專念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叔父의 教育方法 때문이었다.

先生嘗言 吾十二歲 受魯論於叔父松齋先生 先生嚴立課程 不使悠泛 浼承教惕勵 未嘗少懈 既得新知 不必溫故 一卷既畢 通誦一卷 二卷既畢 亦通誦二卷 若此之久 漸與初學不同 讀至三四卷 間有自通解處⁴¹⁾

그는 讀書를 꼭 좋아하여 衆人이 앉은 자리에서도 向壁潛玩하였고, 이때 벌써 陶潛의 詩를 좋아하여 그 爲人됨을 思慕하였다. 19歲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冊을 읽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詩가 있다.

獨愛林廬萬卷書 一般心事 | 年餘
邇來似與原頭會 都把吾心看太虛⁴¹⁾

20歲 때 周易을 求得하자 그 뜻을 講究하기에 거의 寢食을 잇을 程度여서 健康을 해친 나머지 病을 얻어 平生을 疾病으로 辛苦하는 身勢가 되었다. 하기에 그는 晩年에 弟子에게는 恒常 學者는 그 氣力을 헤아려서 잘 때는 자고 일어날 때는 일어나고 隨時 隨處 제 自身을 살피고 體驗하여 마음을 放逸치 않아서 自己의 前徹을 밝지 않도록 注意시키고 있다.

嘗曰 自少雖志於學 而無師友啓發之人 徭假數十年 未知入頭下功處 枉費心思 探索不置 或終夜靜坐 未嘗就枕 仍得心恙 癡學者累年 若果得師友 指示迷途 則豈至枉用心力 老而無得乎(金誠一)⁴²⁾

先生嘗言 吾少時發憤爲學 終日不綴 終夜不寐 遂得痼疾 迄未免病廢之人 學者須量其氣力 當衰

40)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六~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5~6)

41)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六 年譜上 三張 (增補退溪全書 四 p. 114)

42)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3)

而寢 當起而起 隨時隨處 觀省體驗 不使此心放逸而已 何必如此致生病乎(金誠一)⁴³⁾

20歲 前에 그의 學問은 벌써 蘊蓄을 쌓았으니, 19歲 때 性理大全 首尾 二卷을 얻어 試讀하니 自己도 모르게 心悅하고 眼開한 듯하여 熟讀하기를 오래 하니 그 意味를 漸漸 알게 되었다고 한 것으로 알 수 있다.

先生自言 十九歲時 初得性理大全 首尾二卷 試讀之 不覺心悅而眼開 玩熟蓋久 漸見意味 以得其門路 自此始知性理之學 體段自別也(李德弘)⁴⁴⁾

또 그는 23歲 때인 癸未와 33歲 때인 癸巳에 두 차례나 大學(伴宮)에 遊學하였을 때 河西 金麟厚를 비롯한 많은 선비와 交游하며 不撤晝夜로 學問研鑽에 힘썼다. 이때의 그의 學問의 成就度를 알 수 있는 西河의 送別詩가 있어 보기로 한다

夫子嶺之秀 李杜文章王趙筆

그는 宦路에 있을 때도 工夫를 쉬지않고 繼續하였지만은 致仕歸田하여 鄉里에 있을 때는 職務로 늦어진 工夫를 挽回하기 위해서 더욱 힘써 하였다 그러나 學問研鑽과 後進教誨에 힘쓴 時期는 그의 生涯 中 講學期가 始作되는 50歲되던 2월에 退溪 西쪽 溪上에 寒棲庵을 構築하고 堂名을 「靜習」이라 하고 그 속에 파묻혀 讀書을 하는 한편 날로 모여드는 學徒를 가르친 때였다.

이때의 그의 心境을 읊은 詩가 있다

茅茨移構澗巖中	正值巖花發亂紅
古往今來時已晚	朝耕夜讀樂無窮 ⁴⁵⁾
浪浪夜雨聲	朝起青山澗
宿雲半解駁	澗水流更急
巖林迎光景	衆綠如新沐
野人相喚出	幽鳥語款曲
柴荆澆無事	同書盈四壁
古人不在茲	其言有餘馥
望望三益友	來從三徑畝 ⁴⁶⁾

그리고 또 退溪 哲學에서의 가장 큰 功績이라고 할 高峯 奇大升과의 四端七情辨도 臨山書堂이 完成된 60歲 때에 始作해서 以後 10年 間 繼續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朱子學을 集大成한 退溪의 讀書하는 態度를 보기로 한다. 鶴峰은 言行錄에서 「先生은 讀書할 때는 正坐하여 莊重하게 의유했고 글 字에서는 訓을 찾고 글句에서는

43)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3)

44)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3)

45)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移草屋於溪西名曰寒棲庵 四十六張 (增補退溪全書 一 p 69)

46) 退溪先生文集 卷之一 寒棲而後書事 四十八張 (增補退溪全書 一 p 70)

그 뜻을 찾아서 一字一劃의 微細한 곳도 放過하지 않아서 魚魯豕亥의 錯誤를 밝혀내 고야 말았다」고 하고, 또 「平常時에 未明에 일어나서 洗櫛하고 衣冠을 端正히 하고 終日 冊을 보며 或은 齋을 피우고 靜坐하여 恒常 그 마음을 살피기를 해가 저음 좃아 오르는 것과같이 하였다」고 記錄하고 있다

先生讀書 正坐莊誦 字求其訓 句釋其義 未嘗以麤 心大膽讀之 雖一字一畫之微 不爲放過 魚魯豕亥之訛 必辨乃已」⁴⁷⁾

先生年益高 病益深 而進學益力 任道益重 其莊敬持養之功 尤嚴於幽獨得肆之地 平居未明而起 必 盥櫛冠衣 終日觀書 或焚香靜坐 常提省此心如日初昇(鶴峰)⁴⁸⁾

學問으로 大成한 분의 工夫하는 態度는 果是 萬人的 師表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學問研鑽에 힘쓴 退溪가 가장 感銘받고 또 그의 學問 形成에 크게 影響받은 冊은 어떤 것이 있을까? 大體로 性理大全과 心經附註와 朱子大全이라 할 수 있다.

그가 性理大全을 처음 읽어본 것은 19歲 때였다. 이때의 그의 心境을 自述하기를「性理大全을 初得하여 首尾 二卷을 試讀하였더니 不覺 中에 마음이 기쁘고 눈이 열린 듯하여 熟讀하기를 오래 하며 漸漸 그 意味를 알게 되어서 비로써 學問에 들어가는 길을 얻은 듯하여 이로부터 性理學의 體段이 自別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음을 李德弘은 言行錄에서 記錄하고 있다.

退溪가 읽고 心悅而眼開했다고 하는 「性理大全」이란 冊은 어떤 것일까 보기로 할다. 性理大全은 明 永樂帝 13年 (1415 A. D.)에 胡廣 等이 宋代의 道學者인 周謙溪 張橫渠 程明道 程伊川 蔡元定 等의 諸學說을 集大成한 것으로 全70卷으로, 이는 四書大全 五經大全과 함께 永樂의 三大全이라 한다.

性理大全의 內容을 보면 卷一은 太極圖, 太極圖說(周敦頤), 卷二·三是 通書(周敦頤), 卷四는 西銘(張載), 卷五·六은 正蒙(張載), 卷七~十三은 皇極經世書(邵雍), 卷十四~十七은 易學啓蒙(朱熹), 卷十八~二十一은 家禮(朱熹), 卷二十二·三是 律呂新書(蔡沈), 卷二十四·五是 洪範皐極內篇(蔡沈), 卷二十六·七은 理氣, 卷二十八은 鬼神, 卷二十九~三十七은 性理, 卷三十八은 道統, 卷三十九~四十二는 諸儒, 卷四十三~五十六은 學, 卷五十七·八은 諸子, 卷五十九~六十四는 歷代, 卷六十五는 君道, 卷六十六~六十九는 治道, 卷七十은 詩·文으로 되어 있어 이는 性理學은 勿論 家禮 音樂 數學 音聲 政治 文學에 이르기까지 宋代의 學問이 總網羅된 것이다.⁴⁹⁾ 이 冊이 刊行된 以後로 中國과 우리나라의 思想界에 미친 影響은 至大한 것이었다. 하기에 退溪는 남을 가르칠 때 이를 가지고 하였다.

47)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八~九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6~7)

48)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四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4)

49) 國語國文學事典 p 346~7 新丘文化社 1973 11 15

李德弘의 記錄에 依하면

「退溪는 太極圖說을 講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사람과 講學함에 있어서 만드시 먼저 이것을 講하는 것은 내가 初年에 이로부터 들어갔기 때문이다」

先生講太極圖說曰 吾與人講學 必先講此者 吾初年由此而入故耳⁵⁰⁾

고 하였고, 金誠一의 記錄에는 「誠一이 問曰 大學을 읽어도 理氣 問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니 先生 曰 君은 太極圖說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니 그것을 읽어라 하고 또 太極圖說 中에 君子는 이것을 닦아서 吉하고 小人은 이것을 어기어 凶하다는 二句는 學者로서 가장 힘써야 할 點이다. 修之 性之라 함은 但只 敬과 謙 間에 달린 것이니 可히 두렵지 않으랴. 大抵 學者가 먼저 體得하는 段階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 故로 太極 西銘 啓蒙 等書를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고 하였다.

誠一讀大學 於理氣上未達 先生曰 君未學太極圖說 故面譬如此 卽令讀之 又曰 太極圖說中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二句最學者用功夫地頭 修之悖之 只在敬謙之間 可不懼哉 蓋學者不可不先識體段 故多教以太極西銘啓蒙等書⁵¹⁾

年譜에 보면 易學 啓蒙을 講한 때가 많다. 이로써 보면 退溪는 太極圖說 西銘 易學 啓蒙 等書야말로 性理學에 있어서의 源頭處를 말해주는 글이어서 배우는 자가 먼저 體得하는 段階라고 여겼기에 門人에게 이를 먼저 가르쳤던 것이다.

다음 退溪는 心經附註에 대해서 自述하기를 「나는 心經을 언어본 뒤로 비로소 心學의 淵源과 心法의 精微함을 일었다. 故로 나는 平生 이 書를 읽기를 神明과도 같이 하였고 이 書를 恭敬하기를 嚴父와도 같이 하였다고 하고 있다.

先生自言 吾得心經而後 始知心學之淵源 心法之精微 故吾平生信此書如神明 敬此書如嚴父(李德弘)⁵²⁾

그는 23歲 때 서울에 遊學하던 때에 旅館에서 이 冊을 처음 보았고, 그後 이를 얻어 보았을 때 句讀點조차 매지 못하였기에 閉門 數月에 沈潛 反覆하여 自然 알 수 있었고, 모르는 곳이 있으면 두었다가 時時로 꺼내어 虛心 玩味하여 그 뜻을 通하였다고 한다

또 誠一의 記錄에 依하면 退溪는 그의 61歲 때인 辛酉年 冬에 陶山 玩樂齋에서 鷄鳴에 일어나서 莊嚴하게 心經附註를 외었다고 한다.

辛酉冬 先生居陶山玩樂齋 鷄鳴而起 必莊誦一遍 諦聽之 乃心經附註也⁵³⁾

50)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教人 十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31)

51)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教人 十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31)

52)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三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4)

53)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四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4)

이와같이 退溪가 가장 사랑하여 莊誦하고 教人한 心經附註란 어떤 冊일까?

心經附註는 宋代 西山 眞德秀가 詩 書 易 論語 中庸 大學 禮記 孟子 等 經書와 周敎 頤의 通書에서 心性에 關한 格言 等を 採取 編纂한 心經에다가 亦是 宋代 程敏政이 附註한 冊을 말한다.⁵⁴⁾

西山은 儒家의 經典 中에서 心에 關한 글들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每章마다 朱子와 程伊川의 말을 引用하여 註釋을 붙였기 때문에 이 心經은 一種의 程朱學의 思想을 體系化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기에 그는 前言한 바와 같이 心經을 神明과 같이 믿고 嚴父와 같이 尊敬했기에 그의 學問에는 이 心經의 影響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黃仲舉 등이 心經 編述이 無體系하고 內容이 不適當한 곳이 많다고 非難하고 心經을 높이고 믿을만한 冊이 못된다고 한 것에 對해서 「그것은 안 그렇다. 내가 그 冊을 보니 心經의 經文들은 모두가 詩經 書經 周易에서 부터 程朱에 이르기까지 모두 聖賢의 大訓을 추렸고 그 註에도 濂洛 關閩과 後來한 諸賢의 說을 곁들인 것이 至論이 아닌 것이 없다. 어찌 篋墩의 失이 있다고 하여 聖賢의 大訓과 至論까지 높지 않다고 하리」

或曰 如子之言 心經其不足尊信乎 曰是則不然也 吾觀是書 其經則自詩書易 以及于程朱說 皆聖賢大訓也 其註則由濂洛關閩 兼取於後來諸賢之說 無非至論也 何可以篋墩之失 而並大訓至論 不爲之尊信乎⁵⁵⁾

고 하며 心經附註를 辯護하였다. 後에 그는 附註 中의 誤謬를 바로잡기 위하여 손수 心經後論을 지은 바도 있다.

끝으로 朱子大全을 처음 求得하여 읽고 그 所感을 말한 것을 金誠一의 記錄에서 보면 「先生은 일찌기 서울에서 朱子全書를 求得해서 門을 닫고 고요히 보아 한 여름이 지나도록 쉬지 않았다. 혹 누가 더위에 몸을 傷할까 警戒하면 先生 曰 이冊을 읽으면 가슴에서 문득 시원한 氣運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되어 저절로 더위를 모르게 되는 데 무슨 病이 생기겠는가」고 하였다 한다.

先生嘗得朱子全書于都下 自是閉戶靜觀 歷夏不綴 或以暑熱致傷爲戒 先生曰 講此書便覺身膈生涼 自不知其暑 何病之有⁵⁶⁾

이와같이 退溪가 門을 닫고 한 여름동안 쉬지않고 읽었다고 하는 朱子大全이란 어떤 冊인가 보기로 한다.

朱子大全是 本來 「晦菴先生文集」이란 이름으로 朱子の 季子인 朱在가 編纂한 것인데 처음에는 正集 百卷으로 된 것을 後에 續集 十卷 別集 十卷을 添加하여 總百二十卷속을

54) 韓國圖書解題(高大民族文化研究所) 및 退溪의 生涯와 學問(李相殷) 參照

55)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一 心經後論 十四~五張 (增補退溪全書 二 p 327~8)

56)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讀書 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6)

明 憲宗 成化 9年(1473 A D)에 刊行하였고, 또 嘉靖 壬辰에 重刊하였다. 後에 清 康熙 戊辰에 臧眉錫 蔡方炳 등이 이에 續集 一卷을 添加하여 「朱子大全文集」이란 이름을 붙여 刊行한 것이다⁵⁷⁾

退溪는 20歲 때 周易을 읽고 그 뜻을 講究하다가 平生의 病을 얻으면서도 朱子大全을 늦게 얻어 본 것을 안타깝게 여겨 몸을 돌보지 않고 읽었다고 하니 朱子大全에 얼마나 心醉했는가 짐작케 한다. 이와같이 그는 朱子書에 心醉해서 晩年에도 朱子書 研究에 心血을 기울여 이불 손에서 놓지 않았고 朱子全帙가 印出될 때마다 求得해서는 반드시 校正하고 또 익혀서 日常生活에 있어 이 冊의 가르침대로 實踐하였고 또 누가 疑問과 어려운 바를 물으면 이 書에 根據해서 對答한 程度로 朱子書에 뜻을 오로지 하였다.

先生家有朱子書寫本一帙 卷帙甚舊 字畫幾剝 乃讀而然也 其後人多印出 每得新帙 必校讎點竄 溫習一過 文章融會 句句爛熟 其受用如手持而足蹈 耳聞而目視 故日用之間 語默動靜 辭受取予 出處進退之義 無不脗合於是書 人或疑質問難 則必援是書而答之⁵⁸⁾

그는 平生의 學問 中에서 가장 힘을 얻은 것도 이 朱子書였기에 敎人할 때도 「사람이 能히 이 書를 읽으면 學問하는 方法을 알 수 있을 것이요 이미 그 方法을 알게 되면 반드시 感發하여 興이 일어날 것이다. 이에서 工夫를 始作하여 오랫동안 익숙한 뒤에 四 書를 보면 聖賢의 말이 節節이 맛이 있어 自己 몸에도 受用하는 바가 있게 된다고」하였다.

又曰 人能讀此 則可知爲學之方 既知其方 則必且感發興起 其馳外之心少間矣 從此做功 積習既久 然後回看四書 則聖賢之言 將節節有味 於身上方有受用處⁵⁹⁾

그의 門人 鄭惟一도 言行錄에서 「先生의 學問은 오로지 程朱를 標準으로 삼는다. 敬과 義가 夾持하고 知와 行이 並進하며 表裏가 如一하고 本과 末을 함께하며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심어 세운다」고 하였다.

先生學問 一以程朱爲準 敬義夾持 知行並進 表裏如一 本末兼學 洞見大原 植立大本 若論其至 吾東方一人而已⁶⁰⁾

끝으로 退溪의 學德에 대해서 말한 禹性傳과 金誠一의 記錄을 보기로 한다

先生의 學問은 朱子로써 根本을 삼았으며 功利에도 그 뜻을 빼앗기지 않았고 異端에도 迷惑되지 않았다. 넓게 알면서도 雜되지 않았고 簡略하면서도 固陋하지 않았다.

57) 李相殷, 退溪의 生涯와 學問 p 135 瑞文堂 1973 8 20

58)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讀書 八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6)

59)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讀書 七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6)

60)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學問 二張 (增補退溪全書 四 p 24)

先生之學 蓋以朱子爲宗 不爲功利所奪 不爲災端所惑 博而不雜 約而不陋(秋淵)⁶¹⁾

또, 先生의 學問은 私欲이 깨끗이 없어지고 天理가 해치린 만아서 物과 나(我) 사이에 彼此的 區別이 없었다. 그 마음은 바로 天地 萬物과 더불어 上下로 같이 흘러서 各各 微妙한 境地를 얻은 바 있었다.

先生之學 私欲淨盡 天理日明 物我之間 未見有彼此畦 町其心直 與天地萬物 上下同流 有各得其所之妙(鶴峰)⁶²⁾

3 著 述

退溪의 著述은 浩瀚 龍大하다 그의 著述이 어떤 것인지 「增補 退溪全書」(全五冊)⁶³⁾를 가지고 그 內容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의 著述은 「退溪先生文集 內集」 「退溪先生文集 別集」 「退溪先生文集 外集」 「退溪先生文集 續集」 「退陶先生 自省錄」 「四書釋義」 「啓蒙傳疑」 「宋季元明理學通錄 本集」 「宋季元明理學通錄 外集」 「陶山十二曲」 「三經釋義」 등 十一種에 이르고 있다.

十一種의 目次를 보면

1) 「退溪先生文集 內集」의 內容

卷一~五	詩
卷六	教·疏
第七	劄·徑筵講戒·啓議
卷八	辭狀·啓辭·書契修容
卷九~四十	書
卷四十一	雜著
卷四十二	序·記
卷四十三	跋
卷四十四	箴銘·表箋·上樑文
卷四十五	祝文·祭文
卷四十六·七	墓碣誌銘
卷四十八·九	行狀

2) 「退溪先生文集 別集」의 內容

卷一	詩
----	---

3) 「退溪先生文集 外集」의 內容

卷一	詩
----	---

4) 「退溪先生文集 續集」의 內容

卷首	目錄
----	----

61)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成德 十六張 (增補退溪全書 四 p 30)

62) 退陶先生言行通錄 卷之二 成德 十六張 (增補退溪全書 四 p 30)

63) 增補退溪全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所 1971 12 2

- | | |
|------|-----------|
| 卷一·二 | 詩 |
| 卷三~七 | 書 |
| 卷八 | 序·跋·碣銘·雜著 |
- 5). 「退陶先生 自省錄」의 內容
- | | |
|----|---|
| 卷首 | 序 |
| 卷一 | 書 |
- 6). 「四書釋義」의 內容
- 大學釋義(追附 「答奇明彥別紙」「跋」(門人 琴應璫)·中庸釋義·論語釋義·孟子釋義
- 7). 「啓蒙傳疑」의 內容
- | | |
|----|-------------------------|
| 卷首 | 序 |
| 卷一 | 本圖書第一·原卦畫第二·明著策第三·考變占第四 |
- 8). 「宋季元明理學通錄 本集」의 內容
- | | |
|-----|--------------|
| 卷首 | 目錄·小叙·附 |
| 卷一 | 宋季·大師徽國文公朱先生 |
| 卷二 | 宋季·朱門諸子一 |
| 卷三 | 宋季·朱門諸子二 |
| 卷四 | 宋季·朱門諸子三 |
| 卷五 | 宋季·朱門諸子四 |
| 卷六 | 宋季·朱門諸子五 |
| 卷七 | 宋季·朱門諸子六 |
| 卷八 | 宋季·朱門諸子七 |
| 卷九 | 宋季·朱張後私淑諸子 |
| 卷十 | 元·諸子 |
| 卷十一 | 明·諸子 |
| 卷末 | 跋 |
- 9). 「宋季元明理學通錄 外集」의 內容
- | | |
|----|---------|
| 卷一 | 宋季以下 諸子 |
|----|---------|
- 10). 「陶山十二曲」의 內容
- 陶山六曲之一
陶山六曲之二
陶山十二曲 跋
- 附 漁父歌 九章·漁父短歌 五章 短歌 및 跋
- 11). 「三經釋義」의 內容
- 詩釋義
書釋義
追附 答李剛而問目
周易釋義上
周易釋義下

等이 된다. 이의 詳細한 解題는 「增補退溪全書」에 李家源 博士가 해 놓은 것이 있어 여기에서는 省略키로 한다. 이 以外에도 歌辭로 琴譜歌 勸義指路辭 相杵歌 還山別曲 樂貧歌 道德歌 牧童問答歌 等を 創作한 바도 있다.

또, 「增補退溪全書」에는 附錄으로 「退溪先生年譜」「退陶先生言行通錄」「退溪先生言行錄」「退溪先生輓祭錄」「陶山及門諸賢錄」「嶠南賓興錄」「退溪先生文集攷證」「李家粹語」等 八種도 收錄되어 있다.

參考로 그 內容을 보면

- 1). 「退溪先生 年譜」(四卷二冊)의 內容

卷首	退溪先生世系之圖
卷一·二	退溪先生年譜
卷三(附錄)	言行總錄·墓碣銘(先生自銘)·墓識·教書·祭文·陶山書院奉安文·祝文·伊山書院奉安文·蘆江書院奉安文·埋誌告文·文集告成文·刻天淵臺告文·西厓柳成龍謹跋
卷四(附錄)	宗廟配享時家廟致祭教文·文廟從祀時家廟致祭教文·陶山書院致祭文·家廟致祭文·書院致祭文·傳教·題先正退溪簡帖後
- 2). 「退陶先生言行通錄」(八卷五冊)의 內容

卷首	退陶先生言行通錄序(權斗徑謹叙)·目錄·採摭諸家書目錄·凡例
卷一	言行總錄·實記·言行通述·先生自銘·遺事
卷二	類篇 學問第一(爲學·讀書·存省·成德·教人·講辨·術道)
卷三	行實第二(資稟·起居·律身·居家·處鄉·別嫌·辭受·交際·飲酒衣服·賞適)
卷四	出處第三(出處·事君·告君陳戒·居官)
卷五	議論第四(論理氣·論禮制·論時事·論人物) 雜記第五 考終記第六
卷六	年譜(上·西厓成柳龍 撰)
卷七	年譜(中·下)
卷八(附錄)	宗終褒議·祭文讚述·柳謙庵雲龍與李逢原書·鄭寒岡逮引對說話·大學士澤堂李植家訓·李栽謹書(跋)·李袞敬識(跋)
- 3). 「退溪先生言行錄」(六卷三冊)의 內容

卷首	目錄·筭記諸子目錄·凡例
卷一	學問·讀書·論格致·存省·論持敬·成德·教人
卷二	講辨·資品·起居語默之節·律身·居家·奉先·家訓·處鄉·辭受
卷三	交際·飲食衣服之節·樂山水·出處·事君·告君陳誠·居官
卷四	論理氣·論禮·論時事
卷五	論人物·論科舉之弊·崇正學·雜記·筭臣啓辭·考終記
卷六(附錄)	實記·言行通述·遺事·行略·宗終獻議·教文·祭文
- 4). 「退溪先生輓祭錄」(一冊)의 內容

輓詞·誄文(上)·祭文(下)

- 5). 「陶山及門諸賢錄」(五卷二冊)의 內容

卷首	凡例·目錄·自銘·言行總錄
卷一~四	本錄
卷五	續錄
- 6). 「嶠南賓興錄」(一冊)의 內容

卷一	傳教·御製祭文·書啓
卷二	儒生應製榜·御考優等試卷·陶山試士壇碑銘·附嶠村致祭時日記 卷之一

(日記·日記識·西征紀行二百韻)

7). 「退溪先生文集攷證」(八卷四冊)의 內容

卷首	李萬運序·凡例·柳道源謹識(跋)·金與洛謹識(跋)
卷一·二	詩
卷三	詩·教疏·筓·經筵講義·啓議·辭狀·啓·書契修答
卷四~六	書
卷七	書·雜著·序·記·跋·箴銘·表箋·上梁文·祝文·祭文·墓碣誌銘·行狀
卷八	別集(詩)·外集(詩)·續集(詩·書·序·跋·碣·銘·雜著)

8). 「李子粹語」의 內容

卷首	李子粹語序(李瀾識)·凡例·目錄·引用書冊
卷一	道體·爲學
卷二	窮格·涵養·力行
卷三	居家·出處·治道·政事
卷四	教導·警戒·異端·聖賢·安鼎福謹書(跋)·尹東奎敬識(跋)·李忠鎬謹書(跋)·金容禧謹書(跋)

等이 된다.

Ⅲ. 作 品 攷

1. <勸義指路辭> 全文

<第1段>	이보소	사람들아	이니말	드리보소
	한길는	어디두고	斜路로	가노손다
	堯舜적	맞근길이	네부터	일넋거든
	너희는	무스일노	斜路로	드러시며
	仲尼적	눅픈날이	이제도록	발갓거든
	너희는	무스일노	밤으로	단이난다
	仁義로	길을삼고	五倫으로	집을삼아
	이길을	일치말고	저짐으로	니고시라
<第2段>	그러도	모로거든	또호말	들어보소
	大概란	너일너던	찾길난	네호여라
	天地	되여날계	五行이	갓츠시며
	사람이	되여날계	五倫이	갓츠시니
	天地]	天地아녀	五行이	天地오
	사람이	사람아녀	五倫이	사람이라
	하놀이	눅갓거던	이니몸	도라보며
	멀이를	모로거던	눈압홀	살퍼스라
	天地와	萬物도	이몸익	갓츠거던
	堯舜과	孔孟인들	五倫맞계	사람이랴
	가다가	쉬지말고	만나보게	니거스라
	남업시	혼자갈계	더욱조심	호여스라

<第3段> 너몸이 어진일은 적다하고 마치말고
 남의게 슬흔일난 조타하고 흥지마라
 네마음 精一하여 厥中을 주바스라
 雞犬을 일은후의 츠질줄 다아라도
 너마음 일흔후의 츠질줄 모로난다
 湯武와 桀紂스이 千萬里 갓건마난
 츠음의 갈나날계 義利에서 갈나나고
 孔孟과 楊墨스이 方寸인듯 흥건마난
 나종이 어든거시 楚越갓치 되여시니
 이스이 생각하면 그아니 두력온가
 孔孟의 말을하고 孔孟의 法을하면
 孔孟이 되려니와
 盜跖의 옷솔입그 盜跖의 말을하면
 이아니 盜跖인가
 너희도 이를보와 길바로 주바스라

<第4段> 富貴도 나난마다 이마음 소길소나
 貧賤도 나난조타 이마음 여혈손가
 茅簷의 축길적의 長者도 오나가나
 陋巷의 허눔흔계 簞瓢도 잇고업고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배고 누어셔도
 이마음 어든거시 이가온더 질거워라
 千鍾 萬鬪도 이마음 읊기든가
 金王 銀帛으로 이마음 읊기든가
 秦楚의 富로도 생각하면 거긋거시
 趙孟의 貴로도 해게되면 해일리라
 眞實로 어든선명 가진거시 닉야만타
 眞實로 닷글선명 귀흔거시 닉야만타
 連城 白璧은 갑시나 레게해니
 公卿 大夫는 제도로 아솔로다
 이마음 이더운을 하날개 타나이셔
 日月갓치 달려시니 一階도 어덥거든
 제뉘라셔 잠려질고
 秦家 百萬兵이 魯舌의 문혀지니
 匹夫의 가진뜻은 威武로도 어럽도다
 후리쳐 생각하면 腔子上의 못찾더니
 도르혀 풀치해니 天地間의 메엿도다
 이마음 이리켜든 돌더나 업슬소나

<第5段> 丹田으로 터를삼고 赤室로 집울삼아
 鳶飛 魚躍을 다주어 너희두고

一事	一物이	다이집안	거시로다
孟子	浩然章의	거덕강	일너있고
周子	太極圖의	그림조차	傳히시니
爲善	爲惡이	이리仔細	하다마는
사람이	情이입서	勸치못호	탓시런가
千章	萬句맞기	그려조차	뵈얏거늘
너희는	무스일로	이걸호	모로난다
虛靈호	이마옴은	사람마다	두진마는
至誠으로	직회여	恭敬으로	니겨스라
田地와	奴婢는	닷토리나	잇거니와
仁義와	禮智는	뉘라서	말리더니
마음가장	츠즈내여	힘가장	가져스라
一身의	潤호德이	남익게도	미츄리라
平生	餘厚이	子孫의도	호르리라
輕藏	貴寶는	이밖게	또업거늘
너희는	무스일로	貴호줄	모로난다
네마음	조히하야	下流의	居치마라
堂上의	올라안저	曲直을	이라리라

<第6段>

너마음	물이되여	갈리갈리	흘러있다
이물을	모로거던	물질을	아라스라
衆慾이	가시되여	가는길	가려있고
人心이	棧道되여	가난길	흔쳐있다
瀟湘竹	버여너여	가시를	쓰리치고
孔庭栢	베혀너여	棧道를	이어스라
人心이	供水로	九路를	여려있고
人心이	蜀途라도	五丁이	뉘여시니
하물며	무근길을	일마나	다닐소니
坦坦	大道를	하늘갓치	닷가두고
百萬	蒼生을	다가게	만든후의
그제야	근쳐출려	大路로	議論하호
重厚	長者는	일로써	되려니와
士君子	行身大道하야	이만가져	못하리라

<第7段>

이마음	츠진후의	가으로	가지마라
이길의	나선후의	가은덕를	일치마라
東西	南北의도	의지업슨	차이로다
形容	聲息도	보지못호	일이로다
堯舜이	이아니면	四海를	뚜케하며
孔孟이	이아니면	一貫을	法호소나
禹湯	文武들도	어든거시	차이로다

濂洛	關閩	들도	춧	거	시	中	이	로	다
예	브	터	이	를	가	져	大	統	을
生	知		어	든	거	시	다	훈	가
聖	人	도	이	길	히	요	賢	人	도
朱	文	公	업	슨	후	의	中	道	를
玄	黃		알	이	업	시	브	쳐	시
至	矣		맛	아	란	지	오	라	로
堯	舜	은	대	聖	이	라	비	호	면
程	朱	는	대	賢	이	라	덕	어	이
이	中	을	출	혀	잇	서	일	마	다
							찰	혀	스
							라		

<第8段>

百	事	를	심	자	하	면	輕	重	이
萬	物	을	혜	아	리	면	長	短	이
仁	義	로	衡	을	삼	고	禮	智	로
一	錢		가	는	더	로	눈	화	스
過	門		顏	子	라	도	항	시	려
不	改		禹	稷	인	들	못	홀	손
前	聖	人	易	地	則		皆	然	이
너	희	도	權	을	아	라	주	바	스
덕	음	의	骨	髓	의		비	여	시
從	容	이	自	然	이		덕	주	리
節	序	를	天	地	의		中	이	로
化	育	의	鬼	神	이		格	念	하
聖	人	이	이	너	말		맞	골	손
千	萬	人	나	훈	주		말	이	로
하	늘	쌍	나	와	셋		문	이	로
이	길	의	堯	舜	의		거	련	이
이	마	음	禽	獸	의		거	시	로
							다		

<第9段>

처	음	의	네	게	하	야	두	건	마
人	心	이	物	慾	의		못	쳐	있
門	前	을	遠	路	를		어	이	알
物	慾	의	별	스	견		마	라	스
行	裝	을	서	마	음		머	거	스
銘	心	하	刻	骨	하	야	잊	지	마
잘	가	노	못	가	노	라	中	止	마
그	림	즈	말	을	벼	라	니	거	스
흐	르	는	찬	후	의		니	거	스
싼	양	식	德	으로			니	거	스
집	픈	막	義	를	집	퍼	니	거	스
眞	實	로	貴	훈	더		만	하	리
							라		

三達德	모든길로	誠意關	츠즈가서
伊川의	비록쇠위	智水로	긴너서어
明道께	길홀몰어	가다가	저물거닌
晦菴의	들어자고		
沂水의	沐浴하고	春服을	뜯서입고
舞雩의	바람쏘여	曾點을	싸라가면
數仞墻	도라들어	杏壇의	올오리라

<第10段>

나도	첫길이라	仔細히	모로면서
늬조차	가라치기	서젠듯	항건마난
수생의	다닌길을	물너라	항로손가
가다가	알이만나	다시 무려	니커스라

2. 內 容

勸義指路辭는 製作年代를 알 수 없는 歌辭로 聖學十圖(筆寫本) 끝에 指路辭 後叙와 함께 收錄되어 있어 그 傳해진 經路를 알 수 있다.

白天地肇判之後 一理渾渾大道具巧 方是時也 群聖繼作 人不言而道自明· · 愚偶閱弊篋 得是辭於遺卷之中 伏而讀之 不覺其心悅而誠服也 其所感發者 其所興起者 如侍函丈 親提面命也 ···· 豈後學之泛泛看過哉 雖以歌詞 見於後世 先生之憂世俗 而惠後學者 亦深且切矣⁶⁴⁾

作者는 世俗을 근심하여 後學에게 教訓하기 위해서 本歌를 創作한 것인데, 이제 그 文脈에 따라 10段으로 分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第一段

「이보소 사람들아 이니말 드러보소
· · <中略> ·
이길을 일치말고 저집으로 니고시라」

堯舜 때 닦고 孔夫子 때 한층 더 밝혀진 仁義와 五倫이란 大路를 사람들이 [찾지 않고 다만 斜路와 暗黑 世界만을 즐겨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안타까와 해서 사람이란 모름지기 仁義와 五倫을 밝게 닦아 實踐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第二段

「그러도 모로거든 쫓홀말 들어보소
<中略>
남업시 혼자갈계 더욱조심 하여스라」

一段에서 大路와 正道를 行하라고 한 것을 本段에서는 좀 더 具體的으로 言及하고 있

64) 李相寶：李朝歌辭精選 p 76 精研社 1965 5.20

다. 보면 太初에 天地가 肇判할 때 五行을 갖추었고 사람이 태어날 때는 五倫이 갖추었기에 天地는 곧 五行이요 人間은 곧 五倫이라고 할 수 있다.

父子有親하고 君臣有義하고 夫婦有別하고 長幼有序하고 朋友有信하는 사람이라야 참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五倫을 外面하는 사람은 禽獸와 다름없다.

上代 中國의 聖君인 堯舜과 大聖 亞聖인 孔孟도 모두 五倫을 익혀 實踐한 사람들이니 사람들은 모름지기 中途而廢하지 말고 堯舜 孔孟을 본받아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五倫을 修行 精進하라고 하고 있다

第三段

「너뭉의 어진일은 적다하고 마지 말고
.....<中略> . .
너희도 이를보아 길바로 주바스라」

마음 修養을 強調하고 있다.

곧 人倫을 行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마음을 닦아 바로 하는 것이 第一이라고 하고 있다.

退溪는 精一하고 中을 잡는 것이(執中) 學問의 大法이라고 보았기에 마음을 精一하고 中을 잡아라고 하였다.

흔히들 家畜을 잃고는 찾을 줄 알아도 마음을 잃고는 찾을 줄 모르는 것을 慨嘆하고 있다. 聖王인 殷湯 周武王과 暴君인 夏桀王 殷紂王은 聖君과 暴君이라고 해서 한 편은 尊崇받고 한편은 指彈을 받고 있지만 그 갈림길은 義를 어느 程度 尊重하느냐에서 비롯하였고, 堯 舜 禹 湯 文 武 周公의 道를 綜合 大成하여 孝悌忠臣을 주로 한 日常生活의 實踐道德을 完成함에 努力하고, 仁으로써 모든 道德을 一貫하는 最高理念을 삼아 修身 齊家 治國 平天下를 이룩할 수 있는 資質을 涵養함을 本旨로 삼는 孔子子나, 仁義의 道를 세워 性善과 養氣의 說을 主張한 孟子의 學問은 儒學에 있어 大宗이 되고, 社會混亂에서 影響받아 虛無的 厭世觀과 極端的인 個人主義에서 出發하여 利己說과 快樂說을 主張한 楊朱와 兼愛說을 主張하여 墨家派를 이룩한 墨子의 學說들은 모두 儒敎에서 異端이라 排斥指彈 받고 있는 것도 마음을 精一하고 中을 잡느냐의 與否에 있음을 銘心해서 孔孟의 學問을 배우고 實踐하여 孔孟과 같이 되기를 精進하라고 하고 있다.

第四段

「富貴도 나난마다 이마음 소길소나
... <中略>..
이근음 이리커든 들더나 업슬소나」

學問은 마음에서 求하지 않으면 昏迷해서 언지 못한다고 한다 사람은 功利에 誘惑되지 않고 異端에 迷惑됨이 없이 오직 聖賢의 學問을 굳게 믿고 禮義 道德의 實踐에 힘써

야힘을 말한 것이다.

賢賢의 學問에 뜻을 둔 마음은 確固不動한 것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秦楚의 富와 趙孟의 貴함도 마음을 淫亂하게 할 수 없고, 貧賤도 마음을 옮기게 할 수 없고, 威武도 마음을 屈하게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하면 道明 德立된다고 한다.

必至於不動心 則富貴不能淫 貧賤不動移 威武不能屈 可以見其道明德立矣⁶⁵⁾

第五段

「丹田으로 터럭삼고 赤室로 짐울삼아

<中略>

堂上의 올라안저 曲直을 이라리라」

마음을 精一하게 하여 仁義禮智를 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다.

退溪의 心統性情圖說에 보면 「마음이 性と 情을 統率한 까닭에 仁義禮智가 性이 되고 또 仁義之心이라고 한다 한편 마음이 情을 統率한 까닭에 惻隱 羞惡 辭讓 是非가 情이 되고 또 惻隱之心이니 羞惡之心이니 辭讓之心이니 是非之心이라고도 한다. 마음이 性을 統率하지 못하면 未發之中을 極致로 할 수 없어서 性이 뚫어지기 쉽고, 마음이 情을 統率치 못하면 中節之和를 極致로 할 수 없어서 情이 放蕩하기가 쉬울 것이니 學者는 이 점을 잘 認識하고서 반드시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性을 存養하고 그 情을 節制하면 배움의 道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心統性 故仁義禮智爲性 而又有言仁義之心者 心統情 故惻隱羞惡辭讓是非爲情 而又有言惻隱之心 羞惡辭讓是非之心者 心不統性 則無以致其未發之中而性易斲 心不統情 則無以致其中節之和而情易蕩 學者如此 必先正其心 以養其性而約其情 則學之爲道得矣⁶⁶⁾

하기에 本段에서도 배움의 道를 얻고자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하고 性을 기르고 情을 節制하라고 하고 있다.

第六段

「니모음 물이되어 건리갈라 돌러잇다

<中略>

上君子 行身大道야 이만가져 못하리라」

마음이란 마치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모아 두지 않으면 천 갈래 만 갈래 갈라지고 난다.

學問을 함에도 如何히 精一 執中하느냐가 큰 問題가 된다. 하기에 學問하는 마음에는 放心이란 禁物이고, 또 衆慾에 막히고 人心에 斷絶된 心路를 孔庭柏으로 이어 坦坦

65)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心學圖說 二十九張 (增補退溪全書 一 p. 208)

66)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心統性情圖說 二十三張 (增補退溪全書 一 p. 205)

大路를 만듬이 土君子의 行身大道라고 하고 있다.

第七段

「이답음 초진후의 가으로 가지마라
……〈中略〉…
이中을 출려잇서 일마나 참혀스라」

物慾과 衆慾에서 마음을 찾은 後는 放心하지 말고 오직 精一해서 中을 잡아야 한다. 이는 精一하고 執中하는 것이 學問의 大法이기 때문이다.

옛부터 精一 執中한 이를 보면 堯 舜 孔 孟 禹 湯 文 武 周 濂溪 程頤 程顥 張載 朱熹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執中한 이들이기에 大聖 大賢이라 尊崇되고 있으니 사람들은 모름지기 大聖 大賢을 본받아 精一 執中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第八段

「百事를 생각하면 輕重이 다이며
〈中略〉…
이마음 일흔후의 禽獸의 거시로다」

百事에는 輕重이 있고 萬物에는 長短이 있듯이 仁義로 衡을 삼고 禮智로 錘를 삼아 一錢 一兩을 잘 辨別해서 實踐하고 또 學問을 精進하면 自然 堯舜에 갈수 있다고 하고 있다. 八段의 內容을 보면 마치 太極圖說에 있는 「오직 聖人은 中正과 仁義로써 定하고, 靜을 주로 해서 人極을 세웠다. 故로 聖人은 天地와 더불어 그 德을 습하고 日月과 그 明을 습하여 四時와 그 秩序를 습하고 鬼神과 그 吉凶을 습하니 君子는 이를 닦아서 吉하게 된다. 故로 天의 道를 세워 陰과 陽이라 하고 地와 道를 세워 柔와 剛이라 하고 人의 道를 세워 仁과 義라고 한다」고 한 說을 敷衍하고 있는 듯하다.

聖人定之以中正仁義 而主靜立人極焉 故聖人與天地合其德 日月合其明 四時合其序 鬼神合其吉凶 君子修之吉 小人悖之凶 故曰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⁶⁷⁾

第九段

「처음의 이걸들제 네게 할야 두건마는
〈中略〉…
數仞墻 도라들어 杏壇의 올오리라」

赤子의 마음은 人欲에 흐려지지 않은 良心이지만 보통 人心은 欲心에 눈을 뜬 것이다. 하기에 한번 찾은 赤心을 잘 간직해서 物慾에 눈뜨지 말고 聖學에 힘쓸 것이니 너무

67) 退溪先生文集 卷之七 太極圖說 十~十一張 (增補退溪全書 -- p. 198~9)

달리지도 또 쉬지도 말고 조심해서 德과 義에 依持해서 精進하면 程頤 程頤 朱子 曾點을 거쳐 드디어 孔門에 到達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第十段

「나도 첫길이라 仔細히 모로면서
·〈中略〉·
가다가 알아 만나 다시 무려 니거스라」

一段이 序라 하면 本段은 結이라 할 수 있다.

聖賢의 學問에 뜻을 두고 精一 執中하라고 하고서도 結에 와서 退溪의 謙虛함을 나타내어 自己도 初學者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이 외람하다고 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 물어가면서 精進하라고 하고 있다.

3. 形 式

歌辭는 34調乃至 44調를 그 詩想에 따라 制限없이 連續하다가 結詞形式에서 兩班歌辭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543으로 끝맺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44調를 그대로 끝맺고 있고, 또 音數律에 있어서도 兩班歌辭는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인데 比해서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主音數律이 44調이고 副音數律이 34調로 되어 있다. 하기에 兩班歌辭라고 하면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로 되어 있고 結詞形式이 時調의 終章形式처럼 3543으로 되어 있는 歌辭라야 形式面에서 볼 때 優秀한 作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本歌는 그 音數律과 結詞形式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 보기로 한다. 本歌辭는 144節 292句로 되어 있는데, 그 音數律은 다음과 같다.

<表1>

音數律	2 3調	2 4調	3 3調	3 4調	3 6調	4 3調	4 4調
頻度數	17	11	7	196	1	1	59

이에서 보면 本歌는 292句로 構成된 中에서 34調가 196句가 되고, 44調가 59句가 되어 兩班歌辭의 主音數律이 34調이고 副音數律이 44調라고 하는 것에 附合하고 있다.

또, <表1>에 나타난 音數律을 再整理해 보면

5字句 2 3調—— 17句
 6字句 { 2 4調—— 11句
 { 3 3調—— 7句
 7字句 { 3 4調—— 196句
 { 4 3調—— 1句
 8字句 4 4調—— 59句

9字句 36調—1句

가 된다. 本 歌辭에서 7字句인 34調가 使用된 頻度數에 있어 가장 많고 44調의 8字句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他 兩班歌辭의 境遇와 一致하고 있다. 하기에 本 歌辭는 34調 乃至 44調를 基本音數律로 해서 構成되었다는 點에서는 優秀한 歌辭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退溪는 歌辭를 創作함에 있어 兩班歌辭의 正·副音數律을 알고서 使用한 것인지, 偶然히 附屬된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그의 歌辭인 「琴譜歌」의 音數律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2>

音數律	2 3調	2 4調	3 3調	3 4調	3 5調	4 3調	4 4調	
頻度數	5	13	3	86	2	1	20	68)

이에서 보면 琴譜歌 亦是 本歌와 같이 7個의 音數律로 짜여져 있을 뿐 아니라 3 4調가 主音數律이고 44調가 副音數律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 歌辭의 音數律을 잘 알고 있음이 分明하다. 왜냐하면 한 篇의 作品도 아닌 두 篇의 歌辭에서 34調 乃至 44調를 正·副音數律로 해서 構成했다는 點과 正·副音數律 外에 2 3調 2 4調 3 3調 等 極히 少數의 音數律을 가지고 歌辭를 創作했다는 것은 그 手法이 뛰어난을 말해 주고 있다.

그의 歌辭가 形式面에서 어느 程度 優秀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의 歌辭(琴譜歌와 勸義指路辭)와 松江의 歌辭(前後思美人曲)와의 音數律을 對比해 보기로 한다.

<表3>

作品\音數律	節數	句數	2 2調	2 3調	2 4調	3 2調	3 3調	3 4調
退溪歌辭	209	422		22	24		10	282
松江歌辭	111	222	1	6	22	1	23	110

3 5調	3 6調	3 7調	4 3調	4 4調	5 3調
2	1		2	79	
	1	1	3	53	1

69)

68) 拙稿: 退溪의 琴譜歌 研究 (韓國의 哲學 3號) 1975 12 1

69) 松江의 前後思美人曲의 音數律 統計表는 다음 拙稿에서 引用한 것이다.

思美人曲系 歌辭의 比較 研究(慶北大論文集11輯) 1967 12. 25

歌辭의 內容과 形式 攷 (" 12輯) 1968. 12 25

이에 依하면 退溪의 歌辭는 8個의 音數律인데 比해서 松江의 歌辭는 11個의 音數律로 짜여져 있다.

作品에 使用된 音數律의 多寡로써 歌辭 作品의 優劣을 評價할 수는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歌辭도 詩歌이기에 적은 音數律로 構成되는 歌辭일수록 形式面에서 짜임새 있는 作品이어서 優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退溪의 歌辭는 句數에 있어 松江의 것보다 200句가 많으면서도 적은 音數律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은 形式面에 있어서 얼마나 優秀한가를 짐작케 한다. 그러나 結詞形式을 보면 그렇지도 않다.

本歌의 結詞形式을 보기로 한다.

가다가 알이만나 다시무려 니거스라
3 4 4 4

곧 3 4 4 4 로 되어 있다.

兩班歌辭의 結詞形式이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 5 4 3 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本歌의 結詞 第二句를 보면 4字로 되어 있어 이는 오히려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의 結詞形式과 一致하고 있다.

그의 또 한 篇의 歌辭인 琴譜歌의 結詞形式을 보면

엇지타 大聖遺譜을 誤傳함줄 잊슬는가
3 5 4 4

와 같다. 이는 時調의 終章形式과 같은 兩班歌辭의 結詞形式과 一致하고 있어 그의 두 篇의 歌辭의 結詞形式이 한 篇은 定型이고 또 한 篇은 變型임을 보여 주고 있다. 定型・變型을 말하기 前에 歌辭文學의 大家인 松江과 蘆溪의 歌辭의 結詞形式은 어떠한지 살펴 보기로 하겠다.

◦ 松江의 歌辭인 境遇

- 1)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비췌던 얼다 <關東別曲>
3 5 5 2
- 2) 닐이야 날인줄모르셔도 내님조츼려 호노라 <思美人曲>
3 7 5 3
- 3) 작시닐 돌이야쿠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續美人曲>
3 6 4 3
- 4) 손이셔 主人드러닐오던 그더권가 호노라 <星山別曲>
3 7 4 3

◦ 蘆溪의 歌辭인 境遇

- 1) 우리도 聖主을미옵고 同樂太平 호오리란 <太平詞>
3 6 4 4

- 2) 압피에 저술이풀은쇠되도록 합기되서 늘그리라 〈莎堤曲〉
 3 9 4 4
- 3) 그밭기 남은일이야 삼긴터로 살렷노라 〈陋巷詞〉
 3 5 4 4
- 4)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보려 호노라 〈船上嘆〉
 2 5 4 3
- 5) 獨樂堂 清風은 가업실가 호노라 〈獨樂堂〉
 3 3 4 3
- 6) 이몸이 江山風月에 늘글주를 모르로라 〈蘆溪歌〉
 3 5 4 4
- 7) 中心에 그리은적이어는 보음고자 호노라 〈嶺南歌〉
 3 7 4 3

이에서 보면 松江歌辭 四篇은 모두 第二句가 5字 以上이 되어 時調 終章의 第二句의 5字를 維持하고 있고, 蘆溪歌辭는 七篇 中 六篇은 時調 終章의 第二句와 一致하고 있는 데 比해서 오직 獨樂堂에서만은 3字가 되어 5字 以上이라는 規定을 破壞하고 있다.

이에서 우리는 松江은 蘆溪보다 歌辭를 創作한 篇數는 적으면서도 오히려 蘆溪를 물리치고 歌辭文學의 第一人者로 指稱되고 있는 所以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런데 本歌의 結詞形式은 비록 兩班歌辭의 結詞形式에서 破壞되어 있어 兩班歌辭라는 觀點에서 본다면 缺點이 될 수 있지만 筆者가 主張하는 內房歌辭의 形式이 英正祖 때 平民文學의 勃興으로 派生된 것이 아니고 歌辭의 發生 初부터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定型과 一致하지 않는 變型이 있었다고 하는 主張을 뒷받침 해주는 好例의 歌辭가 된다.

흔히들 內房歌辭의 詩形은 英正祖 때 平民文學의 勃興으로 因해서 發生했다고 한다.

金起東 博士는 「歌辭文學의 形態的 考察」⁷⁰⁾에서

「肅宗朝까지에 나온 作品은 全部 時調의 終章과 同一한 結詞法과 音數律을 固守하고 있으나, 英祖朝에 나온 作品을 보면, 保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李眞儒의 「續思美人曲」이나 姜膺煥의 「武彘歌」같은 作品은 時調의 終章性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洪啓英의 「喜雪歌」나 安肇煥의 「萬言詞」 趙星臣의 「陶山別曲」「皆岩歌」 같은 作品에서는 脫落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理由로서 「英祖 以後 貴族文學에서 平民文學으로 轉換하면서부터 定型이 破壞되고 平民들의 生理에 알맞는 變型을 이룩하였다」고 하였다.

金博士의 說을 보면 肅宗朝 以前의 歌辭는 全部 時調의 終章法을 固守하였는데 英正祖 平民文學으로 轉換하면서 그 終章性이 破壞되어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의 結詞法이 이룩되었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中宗朝 때의 退溪의 「勸義指路辭」와 光海君 때의 蘆溪의 「獨樂堂」의 結詞 第二句에서 3字와 4字로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解釋해야 좋을까?

70) 陶南趙潤濟博士 回甲紀念論文集 p 153 新雅社 1964 5. 1

위의 두 作品 以外에도 懶翁和尚의 「尋牛歌」 「樂道歌」, 李緒의 「樂志歌」, 宋純의 「俛仰亭歌」, 退溪의 「牧童問答歌」 등에서 結詞 第二句가 모두 4字로 되어 있다

그래서 筆者는 일찌기 「歌辭의 內容과 形式攷」⁷¹⁾에서 歌辭가 時調形에서 發生되었고, 또 그것은 結詞形式에서 時調 終章과 一致하는 定型(兩班歌辭)과 一致하지 않는 變型이 同時에 派生되어 變型은 위의 作品들에서 綿綿이 이어오다가 英正祖 朝에 이르러 平民文學의 勃興으로 平民과 婦女子에 依해서 他們 歌辭의 結詞法으로 導入되어 크게 活用되었다고 主張한 바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서 退溪의 勸義指路辭는 音數律에 있어서는 3 4調를 主音數律로 하고 4 4調를 副音數律로 한 形式이 極히 整齊된 歌辭이지만 結詞形式은 오히려 兩班歌辭의 結詞에서 벗어난 作品이다.

IV. 結 言

以上에서 論述한 바를 要略해서 結論을 삼고자 한다.

첫째, 作者攷는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에서 作家論의 一環으로 作成된 것이다. 곧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에서는 1) 家系 2) 生涯를 살펴 보았고, 「退溪의 琴譜歌 研究」에서는 1) 生涯(修學期 補充) 2) 爲人을 살펴 보았는데, 本稿에서는 1) 健康 2) 學問 3) 著述에 對해서 살펴 보았다.

1. 健康은 먼저 年譜와 病詩를 가지고 病譜를 作成해 보았다.

그 結果, 그는 平生을 通하여 病魔에 시달리는 몸으로 養生 調病의 生活이 繼續된 多病한 사람이었다.

그가 病을 얻게된 것은 20歲 때 寢食을 잊고 周易의 뜻을 講究하기에 沒頭한 때문이었다, 또 그의 病이 骨髓에 맺혀 癩疾病이 된 것은 그의 37歲 때 母夫人의 服中의 哀痛 때문이었다.

以後 그는 一生동안 健康이 좋지 못하여 調病에 힘썼는데, 그의 生涯 中 特히 健康狀態가 좋지 못한 時期는 「自43歲 至46歲」와 「自66歲 至68歲」 때였다.

2. 學問은 보면 그는 6歲 때 이웃 老人에게 千字文을 배웠고, 12歲 때 叔父 松齋公에게 論語를 배웠다.

그의 叔父의 嚴한 教育은 그로 하여금 學問研鑽에 專念케 하였고, 또 그는 衆人이 있는 자리에서도 向壁潛玩할 程度로 讀書에 熟中하여 平生을 通하여 많은 書籍을 涉獵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特히 性理大全 心經附註 朱子大全을 熟讀하였다.

退溪의 學問의 骨子를 말한 門人 鄭惟一의 評을 보면 「先生의 學問은 오로지 程朱로

71) 歌辭의 內容과 形式攷 (慶北大論文集12集) 1968. 12 25

씨 標準을 삼는다. 敬과 義가 夾持하고 知와 行이 並進하여 表裏가 如一하고 本과 末이 함께 하며 大原을 洞見하고 大本을 汲어 세운다」고 하여 退溪의 學問이 어떠한가를 짐작케 한다.

3. 그의 著述은 浩幹 龍大하다.

漢文으로서는 「退溪先生文集 內集」「退溪先生文集 別集」「退溪先生文集 外集」「退溪先生文集 續集」「退陶先生 自省錄」「四書釋義」「啓蒙傳疑」「宋季元明理學通錄 本集」「宋季元明理學通錄 外集」「三經釋義」等 十種이 있고, 한글 作品으로는 連時調인 「陶山十二曲」과 歌辭인 「琴譜歌」「勸義指路辭」「相杵歌」「還山別曲」「牧童問答歌」「樂貧歌」「道德歌」等이 있다

둘째, 作品은 1) 作品紹介 2) 內容 3) 形式으로 나누어 보았다

1. 勸義指路辭의 全文은 李朝寶 著「李朝歌辭精選」의 것을 轉載 紹介하였다.

2. 本歌는 世俗을 조심하여 後學에게 教訓키 위해서 지은 것인데 그 創作年代는 알 수 없고 오직 聖學十圖 끝에 指路辭 後叙와 함께 실려있어 그 傳해진 經路를 알 수 있을 뿐이다.

作品은 內容을 便宜上 10段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3. 形式에 있어 本歌는 144節 292句로 그 音數律은 7個인데 그 中 34調가 196句, 44調가 59句가 使用되어 있어 本歌는 他 兩班歌辭처럼 34調가 主音數律이고 44調가 副音數律로 되어 있다.

그러나 兩班歌辭의 結詞形式이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3543으로 되어 있는데 比하여 本歌는 오히려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의 結詞形式처럼 44調로 되어 있다

그런데 兩班歌辭인 本歌의 結詞形式이 44調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英正祖 때 平民文學의 擡頭로 因해서 貴族文學에서 平民文學으로 轉換하면서 定型인 3543이 破壞되어 44調로 되었다고 하는 通說에 對해서 이를 否定하고 時調에서 歌辭가 發生한 當初에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하는 定型(3543)과 이와 一致하지 않는 變型(4444)이 있었다고 하는 筆者의 主張을 뒷받침해 주는 好例의 作品이었다.

또, 本歌 및 琴譜歌와 松江의 前後思美人曲의 音數律을 對比해 보았고, 兩班歌辭의 結詞形式이 時調의 終章形式과 一致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松江과 蘆溪의 歌辭의 結詞形式의 音數律을 살펴 보았다.